

◆ KOEMA 消息 ◆

## 1996年度 第4次 理事會 개최

— 韓 圭 完 상근부회장 選任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3월 29일 호텔롯데 3층에서 1996年度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에 韓圭完 前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선임했다.

韓圭完 상근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3년부터 통상산업부(구 상공부) 장관 비서실,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외무서기관, 수출계획과장, 특허청 심사4국장등 要職을 두루 거친 후 (재)한국원사직물시험 검사소 소장,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승인을 얻어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된 韓圭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체는 회원사 이익증진과 정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업계 및 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고 내실있는 기관으로 평가 받도록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업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 설명과 함께 통상산업부 이우공 전기공업과장이 「21세기를 향한 중전기 발전전략」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참여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日 중부전력(주) 해외자재 調達 조사단 訪韓

日本の 전력사들이 전력기자재의 해외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日本 나고야의 중부전력 해외자재 조달 조사단이 訪韓, 구매조사 활동을 벌인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국산 重電機器 제품에 대한 대일 수출선 확보와 일본 전력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나고야 중부전력의 해외자재 조달 조사단을 초청한다.

지난해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파견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케 되는 이번 조사단은 일본 중부전력의 자재구매 담당자인 자재부장을 단장으로 총 7명이 내한, 오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머물면서 국내 종합 중전기 업체인 LG산전,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을 비롯 구매 상담 희망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대한전선(전선 및 케이블), 신아전기공업(차단기 및 개폐기), 동남물산(금구류)의 생산공장을 방문, 국내 업체의 생산체계 및 제품 출하 과정등을 직접 돌아보고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초청 기간중에는 통상산업부 및 한국전기연구소를 방문, 시험설비 및 시험과정등을 살펴볼게 되며 진흥회장 초청 간담회(만찬)를 갖고 양국간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등도 협의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단에는 그동안 중부전력의 방한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간 교류확대를 위해 힘써온 외무부 경제담당 김홍배 주 나고야 영사가 동행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한 對日 진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전력사들은 최근 미국, 유럽, 호주 및 아시아 지역등의 시장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전력기자재가 가격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구매교섭 대상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평가하고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이 일본의 3대 전력사인 중부, 동경, 관서전력을 방문 했을 때도 성의있는 구매교섭과 국산 기자재에 대한 높은 구매의욕을 보인 바 있다.

전기진흥회는 이번 조사단 방한과 관련, 우리나라 중전업체는 그동안 일본과의 기술격차 및 높은 장벽을 의식, 일본 지역에 대한 수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지난해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파견시 우리 중전제품의 우수성과 대일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진 것을 비롯, 이번에 일본 조사단이 직접 방한하여 구매 상담을 갖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對日 수출촉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